

봄철 가정용 보일러 관리요령

겨울철 난방기가 끝남에 따라 겨우내 사용한 보일러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때가 돌아왔다. 겨울철동안 계속된 가동으로 그을음이 깨거나 무리가 가해진 보일러를 그냥 방치해 놓을 경우 연소효율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데 간단히 청소나 손질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金弘經)이 추천하는 간단한 보일러 청소 및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기름보일러

· 보일러의 분해

기름 보일러를 청소할 때는 우선 보일러의 전원과 기름공급을 차단하고 연통과 윗덮개를 분리한 다음 소음기와 열 차단판을 차례로 들어낸다. 버너는 본체에 플랜지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볼트를 풀어서 분리한다.

· 내부 및 굴뚝의 그을음 청소

보일러 내부 전열면이나 벽에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으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솔(브러쉬)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제거해준다. 특히 보일러 내부에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기가 곧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부분도 사이사이에 붙은 그을음도 말끔히 제거해주어야 한다. 연통과 굴뚝

내부도 쇠솔등을 이용해서 그을음을 제거해준다. 물을 이용해서 청소한 경우 보일러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조립하여야 한다. 요즘에는 약품을 뿌려주면 그을음을 없애주는 제품도 나와 있다.

이처럼 내부와 연통의 그을음을 청소해주면 5% 정도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보일러 고장도 예방할 수 있다.

· 버너 및 작동부 관리

버너는 기름이나 그을음 등 이물질을 닦아내고 녹이 슨 곳이 없느가를 확인한다. 녹이 슨 곳에는 방청유를 발라준다. 버너는 여름철 습기가 많을 때 고장나기 쉬우므로 오랜동안 가동하지 않을 때는 기름을 쳐주고 비닐로 봉해둔다. 또 버너 옆의 불꽃을 감지하는 광전관이 더러워지게 되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버너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송
풍기 입구에도 매
연 찌꺼기가 불어
있는 경우가 많으
므로 브러쉬등으
로 제거해준다.

• 기름탱크 관리

기름버너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
름여과기도 분해

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오염이 되었을 때는 새것
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보일러 옆 난방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펌프도 잘 닦아 기름을 친
뒤 수분과 습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비닐로 봉해
둔다. 기름탱크는 탱크바닥의 드레인코크를 열어
물과 이물질, 침전물 등을 배출시켜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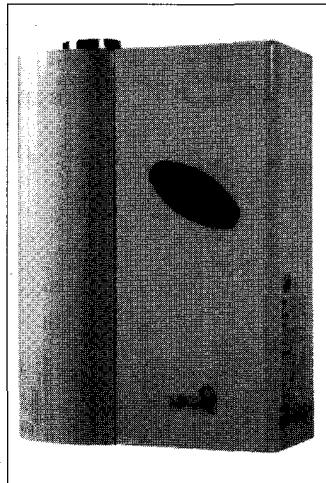
• 조립

손질이 끝난 보일러는 분해의 역순으로 하여
원상태로 조립한다. 다시 가동시켰을 때 조용하
게 보일러가 가동되면 제대로 조립된 것이다.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는 평소에는 내부의 먼지나 오물을
간단히 청소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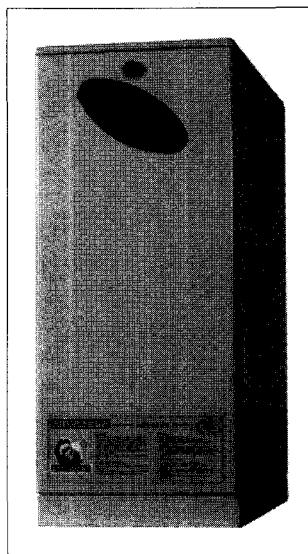
가스보일러를 청소할 때는 우선 보일러의 전
원스위치를 끄고 도시가스 배관의 주밸브와 보
일러옆 보조밸브를 잠근다. 프로판가스를 쓰는
주택은 가스통의 주밸브와 배관선의 보조밸브를



잠근다.

청소요령은 먼저 열교환기를 빼어내 그 안의
녹이나 불순물을 물로 세척하고 전열면도 분무
기로 물을 뿌려 씻어낸다. 버너에 이물질이 많으
면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털어내도록 한다.

부속품을 역순으로 조립한 다음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스관은 반드시 비눗물을 이용



해 가스가 새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가동할 때 버너
의 불꽃이 파란색
이 아니라 붉은 색
으로 보이면 서비
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
지 않을 때는 보일
러 전체를 큰 비닐
로 봉해두는 것이
좋으며 6개월에 1
회씩 가스보일러

제조회사나 판매대리점에 연락해 가스의 누설여
부와 보일러의 성능을 점검받아야 한다.

가스보일러는 여름철에도 온수 사용을 위해
가끔 가동하게 되므로 「온수」 또는 「여름」 쪽으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사용한다. 또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보일러를 가동
시켜야 열교환기나, 부품의 부식, 습기에 의한
고장을 예방하고 순환펌프 작동부의 고착(회전
부위의 달라붙음)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스공
급관이 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하고 보일러실의
환경에 주의한다.